



행복의 전제조건 '자기완성'

지 않은 수행인이 되고자 모인 자리입니다.

도륜 스님은 "내 나이가 많지만 내게는 아직도 무엇이든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세월이 갈수록 남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다 보니 같이 해보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설명했다.

50여 년 수행의 길을 걸어온 노장으로서의 참으로 겸손한 말이였다. 스님의 젊은 시절도 열정으로 가득 찼었다. 진실로 사는 방법을 고민하던 때였다. 천하가 내 것 인양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 때 우연히 절을 찾았던 도륜 스님은 청화 스님에게 "부처님께 참배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은 것을 인연으로 수행자가 됐다.

부처님 전에 처음 절을 올린 그날 밤부터 수일간 청화 스님은 아직 출가전인 도륜 스님에게 불교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설명했다. 도륜 스님은 출가를 결심했다. 위대한 성인인 부처님을 본받고 싶어 수행을 했고, "내가 완성되고 흥분하면 그곳이 평온하다"는 생각에 무소유를 실천하는 탁발의 길을 걸었다. 스님이 대중 생활을 하지 못하고 탁발에 나선 것은 말을 더듬던 습관 탓도 있었다. 나그네가 만난 스님은 오랜 수행 끝에 말을 더듬지 않고 있었다.

당시 청화 스님이 자기 공부가 되기 전이라 해서 상좌를 두지 않았던 까닭에 스님은 탁발만 계속하다가 은사인 청우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스님이 됐다.

도륜 스님은 "인간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 주관"이라며 "행복의 전제조건인 자기완성을 완벽히 이룬 존재가 부처"라고 강조했다.

이러 스님은 "하나가 전체인 것을 알고, 전체가 하나되는 길만 알면 생명의 본질을 꿰뚫고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오직 지금에 충실하며 꾸준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 말했다.

"33조사의 모든 말씀은 조사가 믿음을 바탕으로 직접 체험한 견성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머리로, 말로만 아는 해오(解悟, 알음알이의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음이라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유훈된 것은 상대에 머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그것만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거꾸로 믿음은 곧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도륜 스님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려면 인생의



람들이 늘어갈 때 세상이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이 도륜 스님의 지론이다.

"춥처럼 자기를 태워 세상을 비추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전체를 아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참다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이타행으로 사는 사람, 자기 완성된 사람이 모두 모인 곳 그곳이 불국토입니다."

스님은 "꾸준함"도 강조했다. "대학이 4년 과정이죠? 대학을 나왔다고 하려면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졸업장을 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또, 도륜 스님은 "인연의 스승이 되려면 스님들은 밀·현교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이 본래 하나이기 도 하지만 참선, 진언, 간경, 주력, 염불 등 무엇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스님은 "오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현상에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가자"고 당부했다.

"일렁이는 파도의 끝이 '나'인줄 착각하지만 내 본마음은 흰 거품이 아닌 성난 파도가 아니라 큰 바다입니다."

진아(眞我)와 분성 찾기를 강조한 스님은 2010년 새해를 맞은 불자들에게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자"고 당부했다. "길을 나설 때 갈 곳을 정하고 가면 언제라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만, 목적 없이 가다 보면 중간에 아무 곳에서나 주저앉게 됩니다. 나는 비록 촌부이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참나'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월명암을 내려오는 길, '흙날리는 눈(浮雪)'이 대밭을 덮었다. 바람에 맞았이 부대끼는 소리에서 나그네는 부설 거사의 '팔죽시(八竹詩)'를 들었다.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此竹彼竹 化去竹)/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風打之 竹浪打竹)/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이런 대로 살고(粥粥飯飯生此竹)/ 옹오면 옹고, 그르면 그르고, 저런 대로 보고(是是非非看彼竹)/ 손님 접대는 집안 형편대로(賓客接待家勢竹)/ 시장 물건 사고 파는 것은 세월대로(市井買賣歲月竹)/ 세상만사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萬事不如吾心竹)/ 그렇고 그런 세상 그대로 보내네(然然世過然竹)

클=조동섭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5. 원담 대선사

덕숭문중에서 경허·만공 선사가 나타나자 감명했던 한국불교가 새 빛을 발하게 되었다. 일본 총독을 '지옥중자'라 꾸짖을 정도로 대담한 스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데라우치 마사요시(寺内正毅) 총독은 "30본산 주지는 다 짝은 송장이고 오직 한 분만이 살아있는 부처니, 이리 모시고 오나라"하여 부처님처럼 떠받든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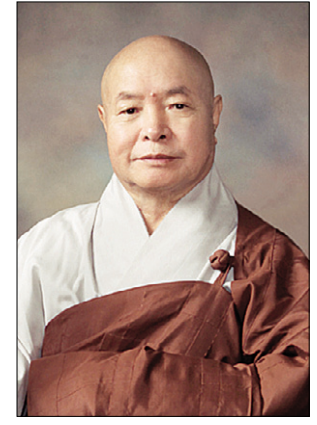
경허·만공 스님, 두 분 선사를 직접 옆에서 시종 든 분이 원담(圓潭, 1926~2008) 스님이다. 1926에 태어나 27년 서천으로 이사, 33년 이모인 비구니스님을 따라 열 살에 벽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만공 스님께 계를 받았다. 그리고 벽초 스님을 따라 일생을 선농일치(禪農一致)사상으로 덕숭문중의 가풍을 형성하였다. 동자스님 때부터 만공

것이 본래 일이 없어/ 청산과 풀은 스스로 푸르도다."

그러므로 만공 스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고,

"참 성품에는 본래 성품이 없고/ 참나는 원래 내가 아니다/ 성품도 나도 아닌 법이/ 일체의 행을 총섭하고 있다."

하고 '진성(眞性)'이란 이름을



소문난 스님의 글씨는 유명했다. 일본 선면예술협회 회원으로 세 번이나 장려상을 받았고, 국제서도전에 입선하였으며, 86년에는 일본산업경제신문이 주최한 국제서도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래(西來)의 가풍을 진작하시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 또한 적지 않았다.

權花滿開三千里(근화만개삼천리)
權木清香半萬年(단목청향반만년)

무궁화 꽃이 3천리 가득히 피고
박달나무 맑은 향기 반만년을 이어 오네.

참으로 멋있는 말씀이다. 필자는 서울 기원정사에서 원담 스님을 처음 뵈었고, 다시 수석사에 가서 견경하고 하룻밤을 묵었으며, 또 송산 스님의 <천강에 비친 달>을 내고 크게 칭찬을

선농일치로 덕숭문중 가풍 형성... 당대 최고의 선필 휘날려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며 무언(無言)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원담 스님은 덕숭문중의 어른으로서 경허·만공으로 이어진 선풍을 드날렸다.

1970년대 초반까지 덕숭산인 삼밭에서 농사를 지은 스님은 "신도의 시주에 의지하는 것은 무위도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직접 농사를 지으며 참선하는 백장 가풍을 출산수행했다. 어려서부터 덕숭산 폭대기의 전월사로 쌀과 물을 지어 나르던 스님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녀서 그런지 키가 크지 않았다"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아무 것도 거리길 것 없는 천진한 도인의 풍모를 보였다.

자그마한 키에 당차게 생긴 스님은 83세의 나이에도 항상 천진동자의 같았다.

"올 때에도 한 물건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에도 한 물건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가고 오는

내렸던 것이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예술·문화·서화에 뛰어나 의제 허백련, 비공 장옥진, 고암 이응로 화백과 교류하면서 각자의 작품을 서로 평하고 취사선택 하였으니 진속(眞俗)이 불이(不二)의 경계였다.

'精進(精進)'이란 두 글자를 크게 써 놓고 항상 눈에서, 발에서 일생을 일하는 것으로 업을 삼았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어?'는 스님의 화두이자 밥그릇이었다. 왜냐하면 제불조사(諸佛祖師)와 일체종생이 모두 그 가운데서 태어나 죽었으며, 그 가운데서 성불하고 제도하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수석사를 현재의 덕숭총림으로 지정해 가람수호와 산중의 화합에 매진했으며, 남자의 탁마(琢磨)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상하게 응대해 왔다. 특히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로

받았다. "나는 세상 일이 알쏭달쏭도 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알쏭달쏭한 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라. 자네는 좋겠네. 세계 각국을 날아다니며 마음대로 포교하고 있으니. 내 송산 스님께 자네 말 많이 들었거든. 나도 좀 구경시켜 달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벌써 스님 떠나신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진실로 세상은 무상한 것이구나 보다.

스님은 평평한 키에 호박처럼 둥글둥글, 한 곳도 어그러진 곳이 없다. 거기에 항상 단담, 대소(大笑)가 그치지 않으니 햇님처럼 밝은 모습이 늘 그늘진 세상을 밝혀주셨다. 원담 스님은 2008년 3월 18일 오후 9시 세수 82, 법랍 75세로 수석사 엄화실에서 입적하셨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기광명 온누리에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송암 혜승
주지 남전 호성

총무 등운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도문
사회 등목 호법 정우
포교 용담 연수 지견(尼)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기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범만
사부대중 일동

선운사 승가대학 063)561-1419
선운사 성보박물관 063)561-1421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063)561-1422
건립추진위원회
백파사상연연구소(준) 063)561-1418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063)563-1111

도솔산 선운사 석상마을에 스님들의 노후와 평생 수행을 위한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